

장미 재배농가 표준 경영진단표 갱신 연구

이철휘*, 최원춘*, 장현동*, 김관후*, 김학현*, 서정학* 허무열**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공주대학교

e-mail:Lch5127@korea.kr

The Study on the Renewal of Management Checklist for Rose Farmer

Cheol-Hwi Lee*, Won-Chun Choi*, Hyun-Dong Jang*, Gwan-Hou Kim*, Hak-hun Kim*, Jeong-Hak Seo*, Moo-Yul Huh**.

*Chungcheo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in Kon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농촌진흥청은 1990년대 이후로 농촌지도사업이 컨설팅 사업 형태로 전환되면서 1998부터 컨설팅 사업에 필요한 작목별 표준 경영진단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까지 60개 작목 표준 경영진단표가 완성되어 지금까지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표준 경영진단표가 현재 농업환경에 맞지 않아 갱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2020년 농촌진흥청은 60개 작목에 대한 갱신연구를 5년에 걸쳐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미 재배농가 표준 경영진단표 갱신연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추진된 연구이다. 장미 표준 경영진단표를 갱신하기 위하여 4가지 단계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첫 번째 농가 파일럿 조사, 전문가협의회 초안작성, 델파이전문가조사 마지막으로 농가실증조사이다. 우선 농가 파일럿 조사를 위하여 독농가를 방문하여 기존의 진단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로 추가되어야 할 세부진단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장미 표준 경영진단표는 크게 경영성과지표와 세부진단지표로 나누어진다. 경영성과지표는 10a당수량, 경영규모, 판매가격을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술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기술수준이 상향이동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현장에 맞게 단계를 조정하였다. 세부진단지표의 경우는 시설구조 및 자동화, 환경관리, 작물관리 그리고 경영관리 4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시설구조 및 자동화에서는 시설재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피복관리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양액재배가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진단표가 토양재배와 양액재배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양액재배로 일원화하였다. 양액재배 시스템을 감안하여 관수관리는 중복되는 면이 있어 제거하였다. 측과, 가온 및 냉방시설, 보온시설, 환기시설, 환경자동화, 병해충 방제기는 기술수준의 변화에 맞게 단계를 조정하였다. 두 번째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기존의 6개에서 5개 세부진단항목으로 축소하였다. 기존의 진단표에서 토양재배 조건에서 시비관리 항목이 들어있던 것을 양액재배에 맞추어 원수 및 양액조성, 양액관리, 환경관리 등을 신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시설재배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온도관리 및 탄산가스 시용에 대한 기술수준에 맞추어 단계를 조정하였다. 작물관리 분야에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병해충 방제를 병해충 예방과 병해충 예찰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품종선택, 병해충방제, 출하전처리, 선별 등은 기술이 발전한 것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였다. 경영관리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농가 수익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하였다. 경영기록 및 분석만 단계 조정을 하고 경영계획, 경영능력 개발, 위험관리, 판매방법, 수확후 관리기술 그리고 마케팅 및 판촉활동 6개를 신규로 설정하였다. 독농가 및 전문가에 의하여 설정된 초안을 현장 전문가 중심의 설문대상자를 설정하여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82%질문에 동의하였고 불일치한 부분은 제안값을 주고 재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분야별 가중치와 세부진단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중요도에 대한 일관성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사분위법(IQR)을 활용하였다. 사분위법에 의하여 1이하의 일치를 결정하고 2이상이면 불일치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 결과 분야별 가중치는 시설구조 및 자동화 25.6%, 환경관리 31.3%, 작물관리 25.7%, 경영관리 17.2%로 나왔다. 그리고 세부진단요소 중요도(1~5)를 보면 시설구조 및 자동화 분야에서 병해충 방제기가 3점이고 나머지 6개 요소는 4점을 기록하였다. 환경관리의 분야는 환경관리와 양액이 5점으로 최고점으로 나왔고 온도관리, 탄산가스 시용, 원수 및 양액조성은 4점으로 나왔다. 작물관리 분야에서는 품종선택이 5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병해충 예방 등 5개는 4점을 기록하였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경영기록 및 분석이 5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경영계획, 위험관리, 판매방법, 수확후관리기술, 마케팅 및 판촉활동은 4점을 기록하였다. 경영능력 개발 요소가 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중치와 중요도를 적용하여 분야별 세부진단요소의 종합집계표를 작성하였다. 장미 표준 경영진단표가 갱신된 이후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한 결과 항목의 기술수준의 차이를 본 결과 표준오차가 $1.0 < SD < 1.5$ 로 변별력을 가늠할 수 있었고 평균은 $2.5 < E \leq 3.0$ 으로 중간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문구를 농가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고 가급적 자가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으로 두어 최종 정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Keyword : checklist, rose, consulting

☞ 본 연구는 2020년 농촌진흥청 연구과제(PJ0148542022)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